

들다방외부음식OK?

들다방을 살려내라!!

들다방은 외부음식 OK? 들다방은 손님은 아니지만 음료 사파시는 사람은 소수다. 알고 보니 들다방을 이용하는 분들이 들다방을 휴게실로 생각하고 외부음식 취식은 물론, 드립커피도 내려 마신다. 드립커피를 많이 내린 손님이 주변 손님에게 나눠 마실 정도이다. 들다방은 모두 오픈, 가만해도 점이 넘치니 줄은 건가... 들다방의 근무자인 김미역씨(39)는 이렇게 말했다. "믹스커피, 이숫가루, 드립커피, 종합세트를 들고 와서 여럿이 돌려 마셔요." 다른 카페에서는 이러지 않길 바랄 뻔이다. 이런 손님을 바라보는 바리스타들에게 한마디 말으려고 한다. "들다방은 망해가도 외부음식 먹고 다들 행복하면... 네... (눈물) 아...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들다방 근무자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 내렸다... **홍지니 기자**

들다방 (위하시지...)



그는 교회 중이 왜 필요했을까...

누가 교회 중을 물렸을까. 들다방이 위치한 유리빌딩을 주막에 개척교회가 대관해서 교회 공간으로 쓴 적이 있었다. 그런데 예 배에 꼭 필요한 교회 중이 없어진 것이다. 그날의 신성한 예배는 그렇게 종소리 없이 이루어졌다. 알고 보니 그 종은 자립 생활주택에 사는 김모씨의 집에서 발견 되었다고 한다. 그는 한때 시월에 살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나 이제는 냉담자 (교회 안 믿는 신앙인)이 된 것이다. 그는 무엇을 위해 집에 교회 중을 가져갔을까. 사실은 잠든 신앙인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 했는지 모른다. '찬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종은 흥건 것인가. 사실 종은 흥겨운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으로 돌아간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권리를 외칠 때, 도둑맞은 권리를 되찾는 것 처럼 말이야... 도둑은 과연 누구인가? 그냥... 소리가 이따서요... 배앓기 권리, 배앓기 땅

특집!!

여경에서 살아남기
逆境 逆境 逆境
조송해안 조송해안 조송해안
Live OR DEAD?

타종 집근중 해주요시 태종 태종 클럼원집



오늘의 노래 추천 | 명구 대장 | 홍운의 숫자 666

오늘의 운수 골라보세요.	홍운의 숫자 666
① ② ③ ④	1182회 로또 당첨번호
① ② ③ ④	1961 1464
① ② ③ ④	당첨자 서문시 오모씨
① ② ③ ④	당첨금: ₩100K₩
① ② ③ ④	지명: 指名手 李 李
① ② ③ ④	수배: 吳世勳 吳世勳
① ② ③ ④	수배: 吳世勳 吳世勳

돌격!! 홍지니 기자가 간다!! 들다방 대사전!

오늘도 들다방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조수달씨(종교25)는 울분을 토한다. "손님들이 저 보고 아가씨라고 불러요." 손님들의 대성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저 결혼했거든요, 아가씨 아니에요, 그거 실례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죠, 그러더니 아줌마 아닌게 어리냐" 하면서 씩씩하다고 한다. "심지어 저보고 중매 맺어주려고도 해요. 장애인한테 잘한다면서요" 아줌마 머리가 아파서 깨진 지경이다. 수달씨는 어느날 극심한 스트레스로 손님들 머리를 들다방 대왕국자로 때리는 꿈까지 꿔다고 한다.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 들다방에는 결혼 안하는 사람, 귀어도 많이 오고 (쉽게 말해 줄게요, 온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초에 장애인한테 다 잘한다. 무슨 장애인인 현민의 대성입니까? 차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아가씨, 아줌마, 그것도 못겨요 못겨서 배꼽 찢어져서 어리가를 했습니다. 하여간... 하이에 대해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래도 말해야겠다 해도, 목구멍에 머무르게 하세요! 이상 홍지니 기자 (분노의 홍지니)

충격!! 섯더퍽 사건!



장구(가명)가 밥 먹다가 "섯더퍽"이라고 목하면서 있었다. 처음 듣는 영어 목설에 놀란 들다방 스태프들. 그러나 긴장된 순간, 그 목은 자세히 들어보니... "쉬었다 갈꺼야" 였다... 쉬었다 갈꺼야가 섯더퍽으로 들렸던 것이다. 목은 나쁘지만 오해도 중물... 상대의 반응을 잘 듣자... 오늘도 고통 하나 얻고 들다방 스태프는 야근에 야근을 하여 늦게 퇴근합니다... 쉬었다 갈꺼야 다 2000만원 들다방 제보...

선생님!! 장구님이 목해요!!

"선생님 장구님이 목해요" 오늘도 들다방에 사건이 터졌다. 어떤 학생이, 장구(가명)가 밥 먹다가 "섯더퍽"이라고 목하면서 있었다. 처음 듣는 영어 목설에 놀란 들다방 스태프들. 그러나 긴장된 순간, 그 목은 자세히 들어보니... "쉬었다 갈꺼야" 였다... 쉬었다 갈꺼야가 섯더퍽으로 들렸던 것이다. 목은 나쁘지만 오해도 중물... 상대의 반응을 잘 듣자... 오늘도 고통 하나 얻고 들다방 스태프는 야근에 야근을 하여 늦게 퇴근합니다... 쉬었다 갈꺼야 다 2000만원 들다방 제보...